

## 제2회 학부생을 위한 스터디 그룹

박은미\*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기획한 ‘학부생을 위한 스터디 그룹’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 함께 공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매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목적은 수업의 깊이와 속도 그리고 방대한 자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스터디 그룹을 지원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데 있다.

제2회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동안의 공모를 거쳐 총 20 팀 98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그룹의 명단은 다음 쪽의 표와 같다. 각 그룹에게는 1인당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학습 공간(교수학습개발 센터 61동 1층 공부방), 그리고 원하는 그룹에 한해 웹하드 100MB가 제공 되었다. 각 그룹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소통하며 2주에 한번씩 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습 보고서와 그룹 활동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28일에 진행된 결과 발표회에서 우수 그룹 2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본 센터는 지난 2005학년도 1학기에 진행된 제1회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담당과목 교수와의 2회 이상 면담을 의무화하고, 스터디 그룹 지원을 확대하며, 또한 스터디 그룹에 제공할 학습 공간(교수학습개발 센터 61동 1층 공부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제2회 프로그램에서는 1인당 제공하는 문화상품권을 하향 조정하여 조금 더 많은 학생들

구분	그룹명	스터디과목	담당 교수		스터디 그룹 대표		인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1	생공단	생화학 1	전공 필수 정 진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	윤정준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화학	6
2	양자화학 스터디	양자화학	전공 필수 석차우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곽경환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5
3	E-퍼스	자구환경 기술경영	전공 선택 허은녕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최승호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6
4	G. A. T	자구환경 기술경영	전공 선택 허은녕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최원재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6
5	팔삼팔오(8385)	자구환경 기술경영	전공 선택 허은녕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이승한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5
6	관악불패(冠岳不敗)	기독교개론	전공 선택 배철현	인문과학대학 종교학과 박병훈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6	
7	U. D. P.	동역학	전공 필수 신상준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문성현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4
8	열심히 해보 '조'	물리학 2	일반 교양 유인석	자연과학대학 물리학부	강효진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6
9	The Probabilistic Method Study	이산수학	전공 선택 자동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이경석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4
10	면역학 뽀개기	미생물 약품화학 2	전공 필수 강창율	약학대학 제약학과	신광희	약학대학 약학과	4
11	Girls on Top with Kim H. K	거시경제이론	전공 필수 이창용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김형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4
12	웰컴 투 수교론	수학교육론	전공 필수 우정호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배효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4
13	Star wars	국제정치학개론	전공 탐색 전재성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박진광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계열	5
14	Hug Fluid	유체역학	전공 필수 이동호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이상제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5
15	Know-가다	계량경제학	전공 선택 황윤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이수련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6
16	생태, 생활이 된다	조경설계 3	전공 필수 임승빈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최장희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5
17	헬리오스	항성대기개론	전공 선택 채종철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신영우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	4
18	날개 2	식품가공학	전공 선택 이행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신승호	생활과학대학 식품공학과	5
19	세계로 가는 좌충우돌 경돌, 경순이!	국제경제론	전공 필수 김신행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희종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4
20	PTN	재료상변태	전공 필수 박병우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김준섭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4

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학기 초에 담당과목 교수들에게 해당 학생들의 스터디 그룹 선정 사실을 공지하고 관심과 지도를 부탁하였다. 본 센터는 결과 발표회를 통해 각 스터디 그룹이 담당교수와의 인간적 교류를 통해서 훨씬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센터 공부방의 탄력적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본 센터 건물에 보안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 근무시간 전후나 공휴일에는 전혀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자유롭게 공부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무척 미안했으나, 제2회 참가자들은 스스로 주변의 학습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점에 대한 불만은 다소 줄어들어 다행스러웠다.

제1, 2회 스터디 그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본 센터는 학부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교수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등, 이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인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과목 조교(T. A.)가 스터디 그룹 운영을 지도해주도록 지원해줄 수 없느냐, 학기 중간에 전체 스터디 그룹 모임을 통해 느슨해진 마음을 추스르고 스케줄 점검도 1회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의 새로운 의견이 나왔다.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여러 바람직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학부생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 매학기 더욱 내실을 다지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은 우수 그룹으로 선정된 ‘관악불패’(冠岳不敗)와 ‘Star wars’의 참관기이다. 간략히 두 팀을 소개하면, ‘관악불패’(冠岳不敗)는 인문과학대학·사범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 등 다양한 전공과 배경에 있는 6명의 학생들이 배철현 교수의 ‘기독교개론’을 함께 수강하면서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마스터하겠다는 목적으로 결성한 그룹이다. 원서로 진행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학문적 도움과 인격적 교류를 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그룹 구성원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팀원들 간의 돈독한 우애와 학문적 동반자를 만났다는 기쁨이 가장 크다고 한다.

또 한 그룹 ‘Star wars’는 사회과학대학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학부제로 인해 특정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나 결속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1학년들이 자연스럽게 학습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이 팀의 5명의 학생들은 전재성 교수의 ‘국제정치학개론’ 과목의 방대한 원문 텍스트에 놀라 스터디 그룹 결성을 결심하고 ‘스터디 그룹 공모’에 지원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원서를 번역하고 숙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주 금요일에 만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1학년 학생들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스터디 그룹 운영 보고서를 매우 충실히 계출하였으며, 담당 과목 교수에게도 매우 사랑받았다는 자랑이 있었다. ⑤

## 교육 프로그램

### 스터디 그룹을 통해 얻은 것

박진광\*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08학번, 우수 스터디 그룹 ‘Star wars’  
조장

사실 지금 생각해도 얼떨떨하다. 1학년들로만 구성된 팀이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말이다. 다시 한번 우리 팀이 했던 것을 살펴보아도 그런 상을 받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스터디 그룹 진행을 정리해보고 또 크게는 1학년들도 충분히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줄필이나마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서울대저널』 기자로서 CTL에서 주최하는 서울대-케이오 기주쿠대학 공동 연구에 참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CTL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CTL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1학년생인 나에게도 접근 가능했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학부생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었다. 그리고 그 팀에 알맞은 강의를 골랐다. 우리 팀의 경우에는 그룹 스터디를 하기로 한 이후에 강의를 선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강의는 ‘국제정치학개론’이라는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팀색 과목이었다. 1학년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두꺼운 원서를 사용하는 이 수업은 수강생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룹 스터디라는 것을 구상하게 만들었다. 그럴 때 내가 제안했던 CTL의 스터디 그룹 지원 프로그램은 안성맞춤이라는 단어를 연상케 했다.